



세대별 노인 문제의 심각성 비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가 65세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1차, 2차 베이비부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2060년 이후에도 큰 감소 없이 1,80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또한, 노인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상되어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심각성은 세대가 지날수록 심각해져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2020년부터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65세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차 베이비부머는 2차 베이비부머와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령화는 우리나라에 심각한 노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연령별 인구 수를 보면 상위 10개년 생에 1960, 1961, 1963, 1968~1974년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1차 또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됨
- 또한, 2000년대 들어 출생아 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들의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는 70, 80년대생도 베이비부머 못지않은 심각한 노인 문제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본고는 우리나라 인구를 세대별로 나누고 각 세대가 접하게 될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구구조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함(표 1) 참조

- 우리나라 인구 중 1955~2002년생을 대상으로 세대별 특성에 따라 5개 세대로 분류함
 -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부머(1968~1974년생)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별 구분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함

- 이후 세대에 대해서는 1975~1984년생을 1차 에코 세대¹⁾, 1985~1996년생을 2차 에코 세대²⁾, 1997~2002년생을 밀레니엄 세대³⁾라고 임의로 칭하여 전체 세대를 5개 세대로 구분하여 비교함
- 각 세대의 모든 인구가 노인 계층(65세 이상)으로 편입되는 해에 노인 부양비가 어떻게 되는지, 절대 노인 인구의 규모는 어떠한 수준에 달하는지를 세대별로 비교해보고자 함
- 각 세대가 모두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해⁴⁾는 1차 베이비부머 2028년, 2차 베이비부머 2039년, 1차 에코 세대 2049년, 2차 에코 세대 2061년, 밀레니엄 세대 2067년임
- 첫 번째 기준으로는 노인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와 총부양비((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를 활용하였으며, 두 번째 기준으로는 65세 이상 인구 즉 노인 인구의 절대 규모를 활용하였음

〈표 1〉 우리나라 세대 구분과 각 세대 노인인구 편입 년도

세대 명	연도	세대 전원 노인 인구 편입 년도
1차 베이비부머	1955~1963년	2028년
2차 베이비부머	1968~1974년	2039년
1차 에코 세대(X 세대)	1975~1984년	2049년
2차 에코 세대(N 세대)	1985~1996년	2061년
밀레니엄 세대	1997~2002년	2067년

■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 전망은 통계청의 2018년 추정 인구를 활용하였으며 30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노인 문제에 가장 불리한 시나리오와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비교함

-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2021년 발표 예정인 5년 주기의 장래인구 추계와는 별도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함
- 통계청은 출산율, 수명, 국제 순이동의 3개 요인에 대해서 각각 고위, 중위, 저위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결합하여 27개 시나리오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더해 2018년 출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 순이동이 없는 경우, OECD 평균 출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등 3개 시나리오를 더해 30개 시나리오를 작성함
- 출산율의 경우 2067년을 기준으로 보면 고위 출산율은 1.45로 수렴하며, 중위는 1.27, 저위는 1.1로

1) 1975~1984년생을 1차 에코 세대(X세대)라고 칭한 이유는 80년 전후로 1차 베이비부머의 자녀가 많이 태어났기 때문이며, 또한 70년대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 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2) 1985~1996년생을 2차 에코 세대(N세대)라고 칭한 이유는 2차 베이비부머의 자녀와 90년대 초 가족계획사업 폐지의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며,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려서부터 익숙한 세대라 N세대라 불리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3) 1997~2002년생을 밀레니엄 세대라 칭한 이유는 2000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유아를 세칭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4) 각 세대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년생이 65세가 되는 해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2차 베이비부머가 모두 노년인구에 편입되는 시기는 74년생이 65세가 되는 2039년이라 할 수 있음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수명의 경우 2067년 기준 고위는 남자 89.3세, 여자 92.8세로 수렴하며, 중위는 남자 88.5세, 여자 91.7세로 수렴하고, 저위는 남자 87.4세, 여자 90.4세로 수렴하는 것으로 가정함
- 외국인 순이동은 2067년 기준 고위는 9만 6천 명 순유입, 중위는 3만 5천명 순유입, 저위는 2만 3천 명 순유출로 가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시나리오에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도입되는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음

- 본고는 인구구조상 노인 부양 여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고위 출산율 - 저위 수명 - 고위 국제 순이동 시나리오와 부양 여력이 가장 약하게 나타나는 저위 출산율 - 고위 수명 - 저위 국제 순이동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대별 노인 부양 여력을 비교함

■ 노년 부양비와 총 부양비를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비교할 경우 세대가 갈수록 부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노인 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고-저-고 시나리오에서도 노년부양비(노인 인구/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 13.8에서 급상승하여 2002년생이 모두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2067년에는 노인 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가 비슷해지는 86.6에 이르게 됨
 - 노인 부양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저-고-저 시나리오의 경우 2차 에코 세대가 모두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2061년에 노인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를 초과하여 노년부양비가 108.4로 나타남
- 생산 가능 인구의 유년 및 노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양비((노인 인구+유년 인구)/생산 가능 인구)의 경우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2차 에코 세대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61년에 각각 100.8, 122.7로 나타나 부양을 받는 인구가 부양을 하는 인구보다 많은 상황이 발생함

〈표 2〉 세대별 노인 부양 부담 비교

인구 시나리오	세대명	세대 전원 노인 인구 편입 년도	노인 부양비 노인 인구 / 생산 가능 인구	총 부양비 (노년+유년인구) / 생산 가능 인구	노인 인구 수(만 명)
고-저-고 (고출산-저수명-고국제 순이동)	1차 베이비부머	2028년	34.3	50.8	1,200
	2차 베이비부머	2039년	55.5	74.8	1,663
	1차 에코세대(X세대)	2049년	69.6	88.7	1,859
	2차 에코세대(N세대)	2061년	80.9	100.8	1,853
	밀레니엄 세대	2067년	86.6	108.3	1,818
저-고-저 (저출산-고수명-저국제 순이동)	1차 베이비부머	2028년	35.5	49.3	1,221
	2차 베이비부머	2039년	60.8	75.7	1,662
	1차 에코세대(X세대)	2049년	83.7	99.2	1,934
	2차 에코세대(N세대)	2061년	108.4	122.7	1,901
	밀레니엄 세대	2067년	122.4	136.4	1,826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의 추정치를 활용함

■ 노인 인구에 있어서도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때보다 오히려 후 세대에서 더 많은 규모로 나타나 절대적인 노인 인구 부양 부담도 심각할 것임(표 2) 참조

- 밀레니엄 세대가 모두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2067년의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1차, 2차 베이비부머가 인구구조에서 이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고-저-고, 저-고-저 시나리오 모두에서 노인 인구 수는 18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나타남⁵⁾

■ 우리나라 노인 문제는 절대 규모와 상대적인 인구구조에서 모두 심각한 상태로 몇 세대를 이어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강력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 필요할 것이나 가장 긍정적인 인구추계 시나리오에서도 노인 문제 해소에 한계가 나타나는 점을 미루어 보아 다양한 추가 인구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적극적인 이민 정책도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67년에도 노인의 절대 인구가 1800만 명을 상회하고 노인 부양비도 100 전후(86.6~122.4)로 나타난다는 것은 향후 노인 부양 부담을 공적 복지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임을 의미함
 - 따라서 보험산업은 요양, 질병 치료, 노후 소득 등과 관련하여 공적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kiri](#)

5) 2067년에는 2차 베이비부머 중 가장 나이가 어린 1975년생이 92세에 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1, 2차 베이비부머는 소수만이 생존할 수밖에 없음